

밝은 불빛이

취소성을 억제한



김 영 환
〈한국 유리브리드〉

부로일러 종계가 산란피크를 지난 이후에 취소성으로 인하여 종란 생산량이 심각하게 감소하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 일이다. 이 결과로 예정보다 2~3개월 먼저 육용 종계를 도태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도 있고, 또 많은 닭들이 앞당겨 환우를 하기도 한다.

취소를 계속하지 못하게 하는 단 하나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취소계를 신속히 찾아내서 격리하는 일이다.

취소하는 닭을 격리하지 않는다면, 취소를 시작한지가 오래된 닭일 수록 교정하기가 더욱 어려워진다. 즉 난소기능이 정지되면 난소는 오그려 들게 되는데, 난소가 더욱 많이 오그려 들은 것 일 수록 정상으로 회복하는데 더욱 많은 시일을 요하기 때문이다.

이상적으로 말하면 취소계를 색출해내는 일은 매일의 일상적인 관리작업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 작업은 매일 오후 마지막 알을 걷을 때 행해질 수 있다. 이때 산란상에 남아 있는 닭을 취소계로 의심하고 검사를 한다. 만일 취소계라면 큰 소리로 꼬룩꼬룩하고 입으로 조울려고 하며 움직이기를 거부할 것이며, 어떤 것은 앞가슴털이 빠져있는 것도 있다.

취소계를 격리시키는 데는 철제나 나무 케이지를 사용하고, 취소계들이 원하는 따뜻하고 편안한 곳이 되어서는 안된다.

격리케이지를 설치할 때에는 산란상 바로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관리자가 늘 취소계 색출작업을 염두에 둘 수 있고, 취소계를 옮겨 격리시키는 데도 수월할 것이다.

산란상과 격리케이지가 멀면 옮겨 넣는데도 노력이 들고, 시간낭비가 되며, 색출작업이 귀찮아져서 나태해지기 쉽다.

격리케이지에 취소계를 수용한동안은 반쯤 굶기는 것이 좋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으나 이것은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

굶기는 것이 취소를 더 빨리 치유시켜 준다는 증거는 없다. 요는 취소계가 가급적 빨리 정상으로 치유되도록 하는 것이 주목적인 바

에는 모이와 물을 충분히 주는 것이 매우바람직한 일이다.

취소계를 격리수용할 때 관리자가 범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잘못중의 하나는 격리 케이지에 너무 오랫동안 수용한다는 점이다.

닭은 새로운 주위환경에 익숙해져 정상적인 생활 패턴을 형성하기 전까지는 산란을 시작하지 않는다. 때문에 그의 본래의 계군으로 빨리 복귀시킬 수록 더욱 좋다.

취소하는 부로일러 종계를 마찰간 격리케이지에 수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알기 위하여 행한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2. 10번 시험에서 8번은 24시간 격리케이지 수용으로 취소성이 치유되었고 2케이스는 48시간만에 치유되었다.

24시간 격리수용만으로 치유된 닭들은 격리케이지에서 석방된지 단지 7일만에 다시 산란을 시작하였다.

2. 반대로 격리케이지에서 3일간을 수용했던 것은 취소성이 100%치유되긴 했으나 케이지에서 석방하여 계군내에 섞이게 한지 평균 12일만에 산란을 시작했다.

3. 매일 틀림없이 취소계를 색출하여낼 수만 있다면 격리케이지에 24시간 이상 수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불경제적이라는 것을 이 시험결과들은 말해주고 있다.

점등광도가 낮을때의 문제점

카니발리즘을 우려하여 점등광도를 낮게 공급할 경우 취소성이 특별히 문제가된다는 사실이 최근 보고들에서 밝혀지고 있다. 낮

은 점등광도 하에서는 취소성도 많이 나타날 뿐아니라 취소성의 치유도 잘 안된다고 양계가들은 보고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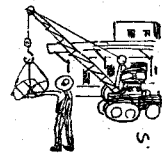
캐나다에서 칠면조를 가지고 한 시험에서 매우 뜻있는 결과를 알게 되었다. 즉 150와트 전등밑에서 24시간을 격리수용한 취소계들은 95%가 치유되었고, 낮은 광도하에서 수용된 것들은 치유된 것이 68%에 불과하였다.

이때 사용하는 전등은 취소계들만을 비취주도록 고안된 샷갓을 씌운 전등을 사용해야 한다.

홀본제를 주사해서도 취소계를 치유시킬 수는 있으나 산란을 시작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 주사, 노력, 환우 유발등으로 권장되지 못하고 있다. 취소계를 치유시키려할 때 단지 격리수용 방법만을 유일의 방법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다.

환기불량, 산란상이 더울 때, 급이면적의 부족등과 같은 관리의 잘못에 의해서도 취소가 유발될 수 있다는 증거가 있다.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양계가들은 놀라겠지만 그러나 몇년전 영국의 한 부화장에서, 모이통을 늘리고, 모이통을 전 계사내에 끌고루 배치하므로써 문제의 계군에서 취소계의 발생을 현저히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발표하였다.

산란 케이지에 수용된 종계들에서 취소계가 비교적 적은 것을 보면, 취소성은 유전적인 것 만큼 환경적인 영향도 중요한 것이다. ○



1. 매일 취소계를 색출하여 격리 케이지에 수용한다.
2. 격리케이지는 산란상(위에 뚜껑이 있는 것일 때)바로 위에나 산란상 바로 옆에 설치하는 것이 취소계의 산란본능을 회복시키는데 효과적이다.
3. 격리수용시 물과 사료 100 이상의 광도를 24시간 계속 공급한 후에 석방한다.
4. 관리불량도 취소계 발생의 원인이 된다.